

## 마크 시더리츠 교수님의 퇴임에 부쳐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지난날을 회고할 때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갔다는 말을 많이 떠올리지만, 시더리츠 선생님과 학과 동료로서 지낸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내게 촌음에 가깝다 할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동료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불교학자로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았으나 벌써 이별할 시간이 닥치니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이 가슴을 저민다.

선생님은 2008년 가을 학기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정교수로 부임 하셨다. 학과 최초의 외국인 교수였다. 이분이 우리대학 교수로 오신 과정은 인연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멀게는 미국의 대학에서 분석철학을 가르치지만 불교철학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는 홍창성교수가 미국철학회에서 시더리츠 교수를 만난 것이 그 인연의 시작일 것이고, 2007년 우리 BK 사업단에서 시행한 블록세미나에 강사로 오셨던 것이 그 가까운 인연의 끈이었던 것 같다. 당시 선생님께는 일주일동안 불교의 무아설을 주제로 하여 하루 4시간씩 대학원생에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모두에게 케미스트리 (chemistry), 즉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다.

이듬해 외국인 교수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선생님께서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직에서 조기 은퇴하셔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던 부인과 해후를 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하시고,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려운 결심을 하셨다. 파란 눈의 미국인이지만 동양의 종교이자 철학인 불교를 좋아하셔서 그것을 평생 연구하신 선생님과,

파리에서 동양 도자기 전문 화랑을 경영할 정도로 동양을 사랑하던 부인께서는 아시아의 오랜 가르침과 예술 전통을 따라 어떤 지중환 인연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1970년대 미국 철학 교육의 최고의 전당이었던 예일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후 미국의 소노마 대학에 잠깐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리노이주립대학에 한곳에서 28년간 봉직 하셨다. 불교 철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에 다른 대학에 가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이다. 저술로는 *Indian Philosophy of Language* (1991), *Personal Identity and Buddhist Philosophy: Empty Persons* (2003), *Buddhism as Philosophy* (2007)이 있고, 공저로 *Self, No Self? Perspectives from Analytical, Phenomenological and Indian Traditions* (2011), *Apoha: Buddhist Nominalism and Human Cognition* (2011), 그리고 “Paleo-Compatibilism and Buddhist Reductionism” 등 수십 편의 중요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다. 최근에는 일본의 카츠라 교수와 함께 용수의 『중론』을 새로 번역해 출판하셔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선생님의 학문 세계는 분석철학의 환원주의 입장을 불교의 무아설에 적용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교의 무아설에서 어떻게 자비와 윤리의 실천이 가능한가,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주체성이 설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지의 자유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인간의 인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자연주의적 틀(naturalistic framework)과 철학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불교적 사유가 어떻게 과학의 자연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윤곽을 잡으려고 노력하셨다.

선생님은 철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다. 그것을 이름 붙여 ‘컨플루언스 철학’(Confluence Philosophy)이라고 부르셨다. 동양과 서양의 철학 전통을 각각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연구한다면 자신의 전통에서 찾을 수 없던 문제의 해답

을 다른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시면서, 철학의 중요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보자고 정열적으로 역설하시곤 하셨다.

교사로서 선생님은 참으로 커다란 모범을 보이셨다. 철학개론을 영어로 수강해야하는 학부학생들의 어려움에 깊이 동감하여 면담시간을 배로 늘여 사용하셨다.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고 나서, 내용 뿐만 아니라 영어와 작문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코멘트를 달아 주셨다. 그러다보니 기말 성적을 내시는데 일주일 이상을 꼬박 보내셨다. 그리고 후배 교수들이 연구나 다른 여러 일에 대해 의논을 드릴 때 놀라운 정도의 참을성의 귀를 가지시고 잘 들어 주시는 좋은 선배이자 멘토이셨다.

선생님은 종종 한국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하시곤 했다. 학생들이 너무 우수하고 사랑스럽다고 하셨다. 그리고 연구와 강의, 그리고 저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하셨다. 학교 옆의 교수아파트에 사는 그 호젓하고 단순한 생활을 사랑하셨고, 부인과 소꿉장난 같은 살림을 꾸리면서 다정하게 사셨다. 그리고 한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으셨다. 한번은 그분의 주말 일과인 장보기에 동행하여 봉천동의 원당시장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하나, 꿀 하나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찬찬히 점검해 고르셨다. 다 고르시고는 주인을 쓱 쳐다보시면서 서투른 한국말로, ‘좀 싸게 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옆에 있던 나와 가게 주인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게 만드셨다.

선생님께서 이같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시는 동안, 부인은 도자기의 세계에 몰입하셨다. 국내외의 미술잡지에 글도 기고하셨고, 미술대학의 도예 공방을 부지런히 다니시다가 전기로 돌아가는 물레를 아예 하나 구입하셔서 교수 아파트 다용도실에 기증해 그곳에 마을 공방이 만들어 지는 계기를 제공하셨다. 아파트 내의 주민들과 아이들 사이에 섞여, 식사 시간을 빼고는 온 종일을 그곳에서 점토를 어루만지며 보내셨다. 며칠 전 파리에 있는 손자손녀들과 크리스마스

를 보내기위해 떠나시면서, 앞으로 한국을 영원히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슬퍼하며 눈물을 보이셨다고 한다.

지난 12월 2일에는 철학사상연구소 주최로 ‘마음과 실재’라는 제목의 국제 학술회의가 열려, 시더리츠 교수님의 은퇴를 기념하여 그분의 학문적 업적과 학교에 대한 헌신을 기릴 기회를 가졌다. 마음과 실재의 본성,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전통적인 철학의 중심 주제이지만,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자연주의나 물리주의와 철학과의 관련에 대해 분석철학자와 불교철학자들이 모여 이 주제를 천착하였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선생님께서 평생 하신 작업의 총화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날 행사가 끝나고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모여 조출한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시더리츠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하시게 되었다. 일주전이 마침 그분 생일이었는데, 부인이 생일 선물로 “what do you want?” 라고 물으셨다고 한다. 그 물음에 대해 당신께서는 천연덕스럽게, “I don’t want anything”이라고 대답했더니, 거기에 대해 부인이 아주 실망하셨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오늘, “I got what I wanted”라고 하셨다. 이번 학술회의가 그분에게 최상의 생일 선물이 되었다고 하시니, 학술회의를 준비하느라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보람과 감동이 있을 수 없었다.

이제 2월에 은퇴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렸다. 은퇴를 대비해서 사년 전에 마련해 놓으신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에서 일단 일 년을 보내시고 그 후의 일은 그때 생각하겠다고 하신다. 다시 후배들과 학생들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말씀은 드려놓았지만, 또 어떤 소중한 인연이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궁금하다. 모두 미지의 가능성일 뿐이다. 지구 어디 계시거나 두분이 내내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빈다.